|  |  |  |  |
| --- | --- | --- | --- |
| **<사전 벤치마킹 문서>** | | | |
| **팀명 : Rooping 팀** | **작성자 : 이경원** | **작성일자 : 2015-07-09** | **페이지 (01)** |
| **벤치마킹 프로그램 명 : 릴레이소설 관련 네이버 카페(릴레이 소설 닷컴)** | | | |
| **프로그램 예상 타겟 :** | | | |
|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서비스** | | | |
| 1. 510개의 전체 카페 중에 대부분의 회원 수가 5명을 넘지 않는다. 간혹 100명이 넘는 카페는 학교에서 행사 같은걸로 진행한 듯한 카페명을 가지고 있다. 그 중 1085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릴레이 소설 닷컴에 대해 조사했다. - 2008년 6월 29일에 개설되어 7년 이란 기간 동안 운영되어 왔지만, 전체 게시글의 수가 362개 밖에 되지 않는다. - 그마저도 2011년 이후로는 활동을 위한 글이 아닌 광고성 글이 대부분을 이룬다. 마지막 게시글은 2014년 10월 06일 게시. | | | |
| **프로그램의 특화 서비스** | | | |
|  | | | |
| **우리가 도입할 만한 특화 서비스** | | | |
|  | | | |
| **이 프로그램의 장점** | | **이 프로그램의 단점** | |
|  | | **실패요인**   * **소수의 작가층. 1000명이 넘어가는 인원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소설을 작성하는 인원은 소수만 존재한다.** | |
| **우리의 서비스** | | | |
|  | | | |

|  |  |  |  |
| --- | --- | --- | --- |
| **<사전 벤치마킹 문서>** | | | |
| **팀명 : Rooping 팀** | **작성자 : 이경원** | **작성일자 : 2015-07-09** | **페이지 (01)** |
| **벤치마킹 프로그램 명 : 인터넷 소설 관련 네이버 카페(인터넷 소설 왕국)** | | | |
| **프로그램 예상 타겟 :** | | | |
|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서비스** | | | |
| 1. **276614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 2. **릴레이 소설을 위한 게시판이 존재하는데, 한달에 몇 개의 글정도는 꾸준히 올라 오고 있다.** 3. **릴레이 소설을 이어가는 방식은, 누구나 참여하는 방식은 아니고 소설을 쓰기 전에 같이 작성할 인원을 구해서 서로간의 의견을 조율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거 같다.** 4. **2015년 6월 21일에 마지막 게시글 게시.** | | | |
| **프로그램의 특화 서비스** | | | |
|  | | | |
| **우리가 도입할 만한 특화 서비스** | | | |
|  | | | |
| **이 프로그램의 장점** | | **이 프로그램의 단점** | |
| **많은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층 후보가 많다고 해야하나..** | |  | |
| **우리의 서비스** | | | |
|  | | | |

카페에서 릴레이 소설에 관한 조사를 했을 때, 전체적으로 완결이 되는건 물론이고, 많은 내용의 화가 진행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어플에서는 이미 조사한 바와 같이 릴레이 소설과 관련된 어플이 2개 존재 했으나 제대로 만들어 지지 않았다.

페이스북에서도 릴레이 소설과 관련된 페이지를 찾아보았는데, 릴레이 소설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었고,

몇 개 있는 소설의 내용조차 일반적인 소설의 내용이 아닌 이상한 내용의 소설이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서비스 하려고 했던, 누구든 릴레이 소설에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댓글로 짧게 짧게 남기다 보니, 소설을 이어가는 것과 상관없는 내용도 많았고, 이전에 이어진 내용과 상관없이 글을 작성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우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면, 소설을 이어가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분량을 작성하게 하거나,

최소한 소설과 상관없는 내용을 작성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 정도는 더 생각을 해봐야 할거 같다.

카페에서 찾아본 릴레이 소설에서는 페이스북이나 우리가 서비스 하려고 하는 것처럼 아무나 릴레이 소설에 참여하는 형태가 아닌, 소설을 시작하기전에 같이 소설을 진행할 사람을 모집해서 그 사람과 의견을 조율 한 후에 집필을 진행하는 형태인거 같다.

하지만 문제점은 일단은 참여하는 인원이 많이 없는 것도 컷지만, 그 소설이 오랫동안 연재가 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시작을 한다고 해도 완결이 나는 소설은 찾아보기가 많이 힘들었고, 5화가 넘어가는 작품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사전벤치마킹을 하면서 찾은 성공 사례는 없다고 봐야 할거 같다.

문제점은

1. 참여하는 인원이 적다.  
   26만명이 넘는 카페에서도 하나의 게시판으로만 제공한다고 하지만, 참여율이 너무 저조했고,   
   조회수도 적었다.
2. 전체적으로 소설과 관련된 카페들이 모두 인원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활동이 많이 저조한 편이었다.
3. 릴레이 소설에 관심이 있고, 집필을 하는 작가 수가 너무 적었다.  
   인원이 많은 카페에서도 게시 되고 있던 작품들의 작가가 거의 한정된 인원들만 돌아가면서 집필을 하고 있었다.